

<춘천, 춘천>: 진짜, 가짜 같다

성동욱

ITX 청춘열차가 춘천으로 향한다. <춘천, 춘천>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이는 쇼트에는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세 명의 사람이 꼭 들어맞게 앉아 있다. 거기엔 짐이 너무 많은 지현(우지현)과, 이제 막 알게된 듯 갑갑한 대화를 하는 흥주(양흥주)와 세랑(이세랑)이 있다. <춘천, 춘천>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취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현의 이야기, 두 번째는 각자의 배우자 몰래 함께 여행 온 흥주와 세랑 커플의 이야기다. 두 에피소드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형식적으로 대구를 이룬다. 지현과 커플은 열차에서 내린 이후엔 다시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춘천 마라톤에서 영화의 시간이 잠깐 느려질 때, 혹은 소양강댐 근처에 그들이 거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비슷한 시간, 가까운 장소에 머물고 있다. 장우진이 이런 형식을 채택한 것은 춘천이라는 장소의 물성과 그 힘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전해지는지를 관객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감독의 그런 의지는 벌써 제목으로, 첫 쇼트로 관객에게 선언되었다.

<춘천, 춘천>의 가장 진귀한 볼거리는 주인공들이 소양강댐 주변에 머물 때에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지현이 친구인 완의 이모네 식당에서 김장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년, 혹은 노년의 여성들이다. 김장이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아주머니들은 지현에게 온갖 좋은 말을 쏟아낸다. 2016년을 살고 있는 청년실업자에게 어른들의 좋은 말만큼 듣기 싫은 말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많은 이야기에 “네”를 연발하는 그의 표정엔 불편한 기색 하나 없다. 지현이 김장을 모두 끝내고 일어서 허리를 한 번 꺾 펴면, 전날 절망했던 그 청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저 곳엔 무엇이 있기에, 친구의 위로를 등지고 벼랑으로 향하던 이 청년을 구한 것일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흥주는 청평산을 오르다 발견한 은행나무를 보고 세랑에게 “진짜 가짜 같다”고 말한다. 그 대사가 말해진 뒤, 카메라는 은행나무를 프레임에 꼭 차게 담는다. 흥주가 허투루 한 말이 아니다. 그 나무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다. “진짜 가짜 같다.” 이 말은 썩 재밌다. 나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문장을 다시 조합해봤다. 개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진짜, 가짜 같다.” 씬표 하나만 찍어도 진짜와 가짜가 같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에 이 대사는 묘하고도 재밌다. 세랑이 소양강댐을 바라보고 있는 씬도 흥미롭다. 흥주가 그녀를 부른다. “세랑 씨.”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화들짝 놀란다. 나는 그 장면에서 대사를 “사랑 씨”라 잘못 들었다. 그런데 그 오해 안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 상황이 훨씬 더 재밌어진다. 산전수전 다 겪은 두 중년이 사랑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옥신각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내가 과도하게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내 오해에 앞서, 장우진이 이 길을 관객에게 미리 열어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것은 확신에 가깝다.

앙드레 지드는 “위선적인 감정과 진정한 감정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춘천, 춘천>의

주인공들은 소양강댐선착장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지현은 춘천역에 도착한 날, 마주친 친구 종성과 “전화 하자”는 말을 주고 받았다. 어느 때 같았으면 그 말은 ‘빈 말’로 남았을 것이다. 한데, 지현은 완의 이모네에서 종성한테 전화를 건다. 실로 오랜만에 하는 두 사람의 통화에는 어색함이 묻어난다. 그는 그 어색함을 한 마디 욕으로 일갈해버리는데, 그 순간 하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관객은 느낀다. 갑자기 이곳에서 위선적인 감정이 진정한 감정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돌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분명한 형식 속에서 어떤 경계를 지워내는 걸 보며 ‘영화관’을 떠올렸다. 관객이 <춘천, 춘천>을 지켜보는 공간이야말로 가장 복잡한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차이밍량의 <안녕, 웅문객잔>(2003)이나 리산드로 알론소의 <판타스마>(2006)처럼 영화, 영화관, 그리고 영화 보는 행위에 대한 작품을 보고 났을 때 관객들은 자신이 영화관을 찾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혼란에 빠지곤 한다. 이 질문은 자주 잊지만,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이다. <춘천, 춘천>은 그 혼란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다. 다만 그 혼란과 고민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장우진의 <춘천, 춘천>은 관객과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을 주저 없이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극도로 재단된 형식은 안전 보다는 혼란을 위한 것이다. 장우진이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어쩌면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혼란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어 놓은 길이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춘천, 춘천>의 춘천은 영화관을 빼닮았다.